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선정기준 일원화 · 중복 · 부정수급 차단
기준미달 · 부실운영시설 지정 취소키로

정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복·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 기관은 지정 취소를 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이 의결됐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를 요하는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강상태, 돌봄욕구, 특수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차별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을 통합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꾀한다. 현재는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입소자 유치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앞으로 기준미달·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한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건강·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해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26년 20%, 2060년 40.1%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방향과 연계해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과잉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성주 기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30일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중기청, 규제개선위 개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30일 전북지방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선위원회에는 '명예옴부즈만'인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이동근 회장을 비롯,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지역내 중소기업 대표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개선위원회에서 발굴된 11건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11건 규제 중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송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규제개선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신광영기자

전북한옥디지털 아이디어 캠프

한옥 건축 분야 관심 확대와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 향상을 위한 전북한옥디지털 아이디어 캠프가 열린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31~ 4.2일 까지 3일간, 전북시제품제작소(3D무한상상카페)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 전통 파라메트릭 제품 제작 캠프'가 마련된다.

파라메트릭은 독립 변수를 사용한 공식에 의해 곡선 또는 표면 등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컴퓨터 지원 설계(CAD) 시스템에 쓰이는 기법이다.

이번 캠프에는 건축분야 디자인 시뮬레이션과 시제품 제작실습과정을 통해 아이디어 표현 능력 향상과 참가자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순서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소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전북시제품제작소.kr) 또는 전화(063-714-2620)로 문의하면된다.

/신광영 기자

익산국토청 - 한전 전북본부 도로내 시설물 설치관리 협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30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락현)와 '도로 및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하천변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하천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익산국토청은 한전이 효율적으로 전신주 등 시설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 및 표준서식 제공, 허가절차 간소화, 허가정보 제공, 점용허가 운용방법 개선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신주 등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시설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익산국토청과 협의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도 이설한다는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기계설비건설協 정기총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영길)는 30일 전주르윈호텔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천환 국장(도 건설교통국), 고재찬 사장(전북개발공사), 정달홍 부회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안춘엽 회장(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지회), 김승섭 회장(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 강희종(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 등 내외빈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2015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16년 사업계획과 2017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한 업계와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건양공사(대표 정기운), (유)동양공사(대표 김승원), (유)나노(대표 장형순), (유)상신건설(대표 안재상), (주)워터그린(대표 백진석), (유)금강기계설비(대표 전길수), (유)풍산건설(대표 박정근), (유)한남엔지니어링(대표 한희선), (주)선일(대표 김병섭), (유)대한엔지니어링(대표 오민우) 등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단순설비에 머물고 있는 대중 인식 개선과 하나의 독립적인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영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내수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원사의 이익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도내 기계설비건설업체 참여는 전무한 상태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명문화해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오늘 시행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으로 상향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세종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포함되는 전북권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변경되며 세종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안진수기자

도공, 고속도 사고예방문구 걸어

고속도로 '톡톡 튀는 감성 문구'가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VMS 1,148곳과 현수막 521곳에 신선하고 기발한 사고예방 문구를 내걸었다. 사고예방문구는 지난 2월 도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딱딱한 문구 대신 눈길을 사로잡는 신선한 문구로 사고 예방에 나섰다.

주요 문구로는 ▲봄바람은 차안으로~ 졸음은 창밖으로',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같은 졸음예방 문구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촉구하는 '꽃보다 안전띠', '말하지 않아도 전좌석 안전띠' 등이 있다.

/신광영 기자

전주롯데백, 봄맞이 정기세일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Lovely 名作 SALE' 새봄 맞이 정기세일을 18일간 진행 한다.

이번 정기 세일은 봄을 맞이해 진행되는 대규모 세일인 만큼 아우터·스포츠·아웃도어 등 봄 수요에 걸맞은 인기상품들을 '명작 트렌드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할인 판매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는 오는 31일부터 4월3일까지 '린컬퍼니' 패밀리 대전과 커리어우먼을 위한 봄 패션 기획전을 진행하고, 31일부터 4월 7일까지 블랙아크/밀레 봄 산행 특별행사를 40%에서 최대 70%까지 세일한다.

또한 1층 이벤트매장에서는 31일부터 4월3일까지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홈패션 / 주방용품 자선 대 바자를 진행한다. 광목사랑포라트, 레노마, 박홍근 등 총 15개 유명브랜드가 대거 참여하여 바자특가상품, 한정판매 줄거기상품 등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여 새봄의 침실을 화사하게 바꿀 수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새로 입점한 전세계 프리미엄 매트리스 판매 1위 '템퍼'브랜드 신규입점 축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매트리스 전 제품 10% 할인과 기간 중 100분에 한해 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 7% 증정 등 할인 및 사은행사도 마련했다.

관계자는 "최신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신보, 도내 수출기업 1653억원 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한기정, 이하 '신보')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북지역 수출기업에 1,653억원, 5년 이내 창업기업에 3,215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출기업 부문에서 472억원, 창업기업 부문에서 439억원 증가한 것으로, 신보가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지식재산보증 43억원, Smart융합보증 1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과학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기술융합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이다.

또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퍼스트펭귄형기업, Best-Value 서비스기업 등 고속성장형 기업 발굴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수기자